한-미 기습 금리인하에도, 7000억달러 MBS 매입에도

"지수 전망 의미없어… 경제부양 글로벌 공조가 관건"

경제전문가 증시 긴급 진단

주식시장 방향성 한 달은 지켜봐야
바이러스 사라져야 인하 효과 영향

모든 경제전망이 무의미해졌다. 세간의 관심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최소 한 달 동안은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6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미국 연준은 7000억달러(약 853조원) 규모의 국채·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 사실상의 양적완화(QE)에 착수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을 포함한 세계 5개 중앙은행과 공조해 달러 스와프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는 등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주말에 금리를 변경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조치로, 지난 1979년 10월 6일 토요일 저녁의 금리 인상 이후 처음"이라며 "이번의 기습 금리 인하는 통화당국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증시 전망 무의미"

경제 전문가 증시 전망

"증시 전망 무의미, 최소 한달은 지켜봐야"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원
"금융위기와 달리, 통화정책으로 주가 상승 기대할 수 없다"
"안전통화 확보 수요, 달러가치 상승"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최소 한 달은 지켜봐야"
"유가의 안정, 글로벌 공조 필요"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증시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
"코로나 공포, 더 큰게 남았을지도"

미국의 전격 금리인하 소식에도 증권가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 전망을 사실상 포기했다. 실제 글로벌 주가 하락이 시작됐을 때 일부 증권사는 코스피 지수 하단을 1900선으로 잡았지만 현재는 1100선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차지하는 국가들에 코로나19가 번진 상황"이라면서 "지수 하단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증시에 가장 큰 변수는 바이러스 자체"라면서 "금리 인하 효과는 바이러스가 진정된 후에야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센터장 역시 "한국은행이 25bp를 하락하든, 50bp를 하락하든 국내 주식시장은 반응이 없을 것"이라면서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경제 부양을 위해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방향성은 최소 한 달은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유가 안정, 회사채 리스크 해소 등 다른 요소도 안정화되는 것이 조건이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통화정책은 이미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재료였다"면서 "결국 글로벌 정책 공조, 부실한 파이낸싱 정리 등 질적 완화, 유가 안정 등 세가지 요소가 해결이 돼야 금융시장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채권 여전히 불안정

환율과 채권시장에 대한 전망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환율은 당분간 1200원대 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원화 절상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채권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회사채 시장의 불안이 해소되는 게 관건이다.

소병은 NH선물 연구원은 "국내 수출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가 하단을 지지해 환율은 1200원대 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의 변동성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채금리 하락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미국채 금리는 연준의 제로금리 복귀 선언과 양적완화에 따른 채권매입 재료까지 더해져 0.6%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의 채권금리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급등락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금값마저… 하락반전 '충격'

금 가격 2.17% 떨어지며 6만920원
고점인 지난달 24일보다 7% 이상 ↓
'일시적 조정' 저가 매수기회 관측도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천정부지로 치솟던 금값도 역주행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불러온 금융시장 혼란 속에서 배신하지 않는 투자 피난처로 주목받았지만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현금만 보유하겠다는 극단적인 투자심리 위축이 자본시장을 얼어 붙게 만들었다.

16일 한국거래소에서 금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350원(2.17%) 떨어진 g당 6만92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13일 1.85% 떨어지며 내림세를 예고했던 금값은 또 폭락했다.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달 24일 6만5775원보다 7% 이상 떨어졌다.

이날 금값 추락은 사실상 예고됐던 것으로 보인다. 폭락 분위기는 국제시장에 먼저 감지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도 금값은 전일보다 73.6포인트(4.63%) 떨어진 온스당 1515.7달러에 마감했다. 1674.5달러로 고점을 찍었던 지난 9일 이후 다음날 0.92%를 시작으로 11일 1.08%, 12일 3.17%, 13일 4.63%까지 나흘 연속 폭락했다.

갈 길 잃은 금값의 향방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현금을 들고 있다 변동성 장세가 진정될 때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조언과 지금이 금을 저가 매수할 기회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관계자가 순금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에선 현금을 챙겨놓으려는 투자자들의 수요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과 유럽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라며 "지난주부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신용시장의 경색이 시작되며 당분간 현금 보유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금값이 '저가 매수 기회'라는 조언도 있다. 최진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값 하락은 상승기 종식이 아닌 일시적 조정"이라며 "안전자산 선호심리보다 중앙은행들의 정책 방향이 금값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유럽중앙은행(Fed)이 통화정책에 따라 금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최대 18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송태화 기자 alvin@